

다양하게 접해야 할 일본사상의 정수

불교사상 분야 압도적, 철학이론서는 적어

최재철

한국의국어대학교수 · 일본학

일본사상 이론서의 번역은 주로 1980년대 중반 이후에 출간되기 시작하여 현재 수십 종에 달한다. 그러나 꼭 읽어볼 만한 고전이 각 분야별로 망라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. <일본사상총서>나 <일본문화총서>, <일본학총서>, 불교관련 총서, 또는 단행본 등 간행된 번역서 가운데 불교사상 분야가 압도적으로 많으며 일반 철학이론 분야는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.

후쿠자와 유키치의 문명론, 사상사 총론, 일본 최고의 사서이자 사상사의 연원인 <고사기> <일본서기>의 번역과 한국일본학회의 <일본사상총서> 간행 등으로 이 분야의 소개가 겨우 기틀을 잡기 시작했다. <일본사상총서>는 계몽·철학·교육·민속·불교·신도·과학 사상 등 1차분 7권과, 서민사상·예도사상 1(노오가쿠能樂론)·2(茶道론, 詩歌론) 등 2차분 3권 속간으로 전10권을 전문성에 입각하여 원전을 완역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. 이를 통해 독자는 고대부터 중세·근세·근대·현대에 걸쳐 일본의 사상을 다양하게 접할 수 있다.

한림대의 <일본학총서> 중에서도 일본사상 관련서가 10여권 포함되어 있어 일본사상 이해의 저변 확대에 기여하리라고 본다. 불교사상 관련서도 다수 있는데, 민족사의 <깨달음총서>(전45권) 중에서 27권과 불교시대사의 <만다라총서>(전12권) 전부를 비롯하여, 경서원, 흥법원 등의 불교서적은 일본출판물의 번역이 대개 80%를 점유한다. 그밖에 미학·철학·윤리학 등의 서적이 부분적으로 번역되었고, 일본(인)론 번역서도 늘어나는 추세다.

■ 문명론·사상

- 문명론의 개략/후쿠자와 유키치, 정명환 역/홍성사
- 학문을 권함/후쿠자와 유키치, 엄창순·김경진 역/지안사
- 고사기/노성환 역/예전사
- 일본서기/성은구 역/고려원
- 일본서기/전용신 역/일지사

■ 사상사

- 일본사상사/모리모토 준이치로, 김석근·이

근우 역/이론과실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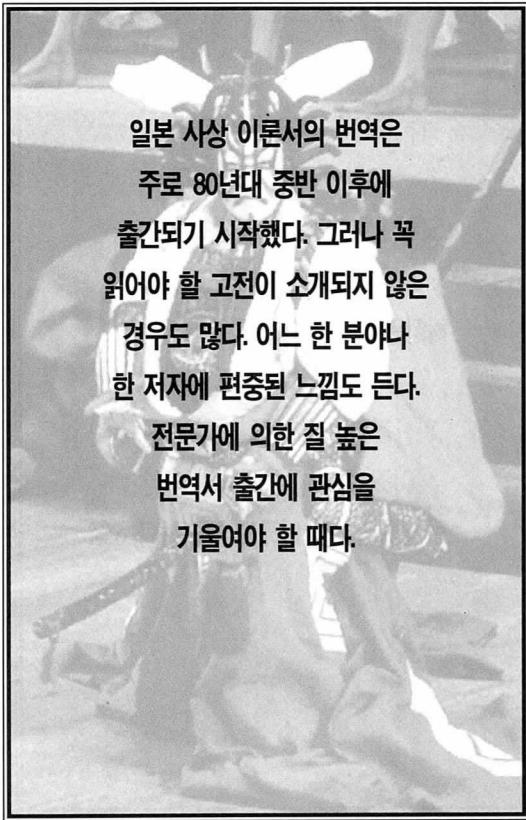
· 일본근대사상사/쿠노 오사무·츠루미순스케, 심원섭 역/문학과지성사

· 일본의 사상/마루야마 마사오, 김석근 역/한길사

· 일본의 정치사상사 연구/마루야마 마사오, 김석근 역/통나무

일본학회에서 <일본사상총서>(전7권)를 광일문화사에서 펴냈다. <문명론의 개략>(후쿠자와 유키치 작, 정명환 역), <구상력의 논리>(미키 키요시, 한단석 역), <화속동자훈>(카이바라 에키켄, 한기연 역), <선조의 이야기>(야나기다 쿠니오, 최길성·노성환 역), <보권좌선의>(에이헤이 도겐, 김지건 역), <영의 진주>(히라타 아즈타네), <의의약설, 천문경통>(코바야시 켄테이·시부카와 하루미, 강석태 역) 등이 이에 속한다. 일본학회가 시사일본어사를 통해 속간한 <일본사상총서>(전3권)의 '서민사상' 편에는 <초닝 부쿠로>의 (니시카와 죠켄, 황성규 역), '예도사상' 편에는 <풍자화전> <화경>·의(제아미, 김효자 역)와 <남방록>(난보 쇼케이, 박전열 역), <고금집카나서>·의(키노 츠라유키, 이한창 역) 등이 있다.

한림대학교 일본학연구소에서 펴낸 <한림일본학총서>(소화) 속에는 <일본적 자아>(미나미 히로시, 서정완 역), <중국사상과 일본사상>(즈다 소오키치, 남기학 역), <근대일본인의 발상형식>(이토 세이, 고재석 역), <일본인의 논리구조>(이타사카 겐, 정형 역), <일본인의 집단(나카마) 의식>(요네야마 토시나오, 김필동 역), <사상사의 방법과 대상>



(마루야마 마사오 외, 고재석 역) 등이 있다.

■ 불교사상

- 선과 일본 문화/야나기다 세이잔, 한보광 역/불광출판부
- 일본 불교사이다. 이영자 역/민족사
- 한일고대불교관계사/타무라, 노성환 역/학문사
- 용수의 삶과 사상/나카

- 일본인/야나기다 쿠니오, 이용덕 역/형설
- 일본사회의 인간관계/나카네 치에, 명지대 일본문제연구소 역/학문사
- 일본사회의 성격/나카네 치에, 이광규 역/일지사
- 일본인의 의식구조 - '아마에'의 구조/도이 타케오, 이장호 역/보진재

최근 민음사가 <일본의 현대 지성> 시리즈(전10권)를 기획하고 있는데 이마무라 히토시의 <근대성의 구조>, 야마구치 마사오의 <문화와 양의성>, 이즈츠 토시히코의 <의미의 깊이>, 이마미치 토모노부의 <동서의 철학>, 나카무라 유치로의 <공통감각론> 등이 출간되면 일본의 현대 사조를 새로이 느끼게 될 것이다.

번역서를 조사하면서 어느 한 분야나 한 저자의 저서에 편중되는 경우가 눈에 띈다는 점과, 역시 번역의 질의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전문가가 번역해야한다는 점을 느꼈다. 어렵더라도 일본의 명저 중에서 꼭 읽어야 할 분야의 고전을 전문가가 사명감을 갖고, 우선적으로 번역 간행하여 일본사상의 정수를 접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. 아직 번역이 안된 것으로 보이는 다음과 같은 도서는 앞으로 소개할 만하다고 본다.

■ 번역할 만한 일본 사상 이론서

- 문학에 나타난 우리 국민사상의 연구/즈다 소키치
- 후쿠자와 자서전/후쿠자와 유키치
- 풍토/와츠지 테츠로
- 선의 연구/니시다 키타로
- 난학개시/스기타 겐파쿠
- 무사도/니토베 이나조
- 나는 어떻게 기독교신자가 되었는가/우치무라 칸조
- 동양의 이상/오카쿠라 텐신
- 이키 '이키'의 구조/쿠키 슈우조
- 사소설론/코바야시 히데오
- 눈에 보이지 않는 것/유가와 히데키
- 일본자본주의 발달사/노로 에이타로
- 일본 이데올로기론/토사카 준 ❖

- 무라 겐, 이재호 역/불교시대사
- 일본인의 사유방법/나카무라 겐, 김지건 역/김영사
- 화엄경의 세계/타미키 고시로, 이원섭 역/현암사
- 중국불교사/카베다 시게오, 정순일 역/경서원
- 초기 부파불교의 역사/후지타 코오타츠 작, 권오민 역/민족사
- 선과 정토/후지요시 치카이, 한보광 역/민족사
- 불교의 심층심리/오오타, 정병조 역/현암사
- 정토삼부경 개설/츠보이, 이태원 역/운주사
- 여래장사상/히라카와 아키라 외, 종호 역/경서원
- 유식(唯識)철학/요코야마, 묘주 역/경서원
- 관무량수경강화/蓬萊祖運, 석수영 역/흥법원

■ 미학·윤리학

- 미론·에론/이마미치 토모노부, 백기수 역/정음사
- 에코 에티카/이마미치 토모노부, 정명환 역/술
- 인간의 학으로서의 윤리학/와츠지 테츠로, 최성묵 역/이문출판사

■ 일본론